

다가오는 가을... 온천욕 즐기며 피로를 말끔히



천연온천, 미네랄 풍부·피부질환 탁월 가족탕 흑운모석, 발암물질 제거 효능

유난히도 무더운 올 여름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그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열대야로 잠 못 이룬 밤이 깊어질수록 몸과 마음은 지치게 마련이어서 올 가을엔 힐링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그곳으로 가고 싶다.

하루하루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곳을 찾게 되는 데 바로 상관유스호텔(상관리조트 & 스파)이다.

며칠이면(8월26일) 개장된 지 두 돌을 맞이하게 된다. 청정지역인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에 조성된 상관유스호텔(상관리조트 & 스파)은 전국 최고의 '피톤치드' 함량을 보유한 상관면 공기마을 편백나무 숲과 더불어 또 다른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장수 온천수는 지하 931m 황토안반층에서 추출한 28℃의 천연온천 지장수로서 미네랄이 풍부하여 각종 피부질환(아토피, 피부트러블, 각질, 무좀)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원활한 신진대사로 피부미용에 탁월해 스킨, 로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촉촉함이 유지된다.

또한 유황온천은 지하 200-240m 황토안반에서 추출한 18℃이 천연암반온천수로서 스트레스 완화작용, 면역력 강화, 알레르기 개선, 숙면유도, 피부의 가려움증 해소, 심폐



하승미 대표

기능 강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38개의 가족탕은 흑운모석(황토와 맥반석보다 약 3배 이상 원적외선 방사율(94%)이 높으며 게르마늄 함량이 36ppm에 이르는 생명의 돌로서 발암물질도 제거시키는 효능이 있고, 체내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혈액순환과 각종 현대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으로 마감 처리하여 피로회복과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다.

레스토랑 피노(본관 3층)에는 다년간의 호텔조리 경력의 전문 조리사들이 한식, 양식의 다양한 요리들로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최고의 시설을 갖춘 세미나실에서는 각종 행사나 단체모임을 위한 120석 규모의 연회석이 마련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상관유스호텔(상관리조트 & 스파)은 총부지 12,000평으로 리조트와 온천욕을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확장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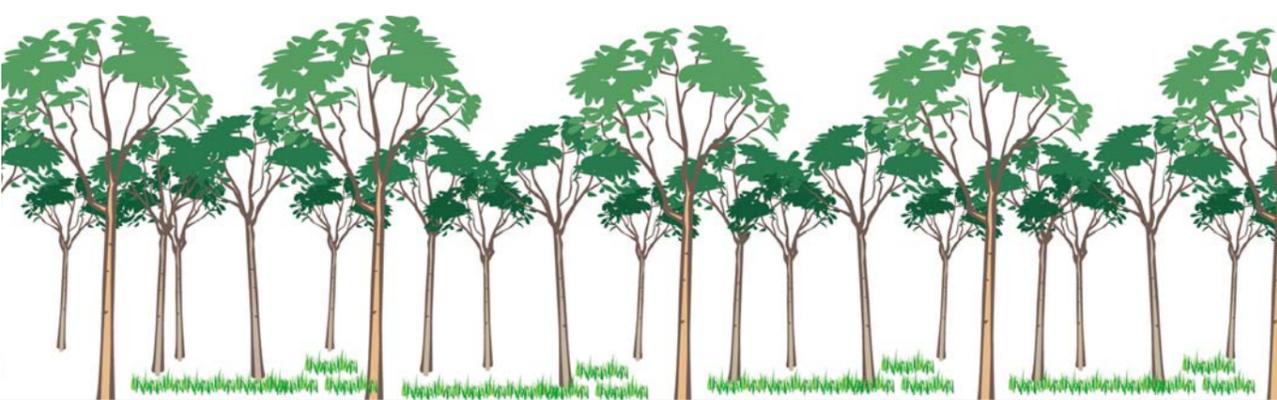
상관유스호텔 뒤편으로 삼림욕장을 조성하여 청정한 대기를 쉼으로써 공기의 신선함, 시정각적 효과, 자연을 벗 삼아 야산을 걷는 운동효과 등에 기대가 매우 큰 곳이다.

상관유스호텔에서 15분 거리에 전주 한옥마을이 있어서 이곳에서 구경을 한 뒤 숙박은 상관유스호텔에서 묵게 된다면 힐링도 겸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다보니 최근 전국에서 학생들 수학여행단들이 쇄도하고 있다.

상관유스호텔(상관리조트 & 스파) 하승미 대표이사는 전 직원 친절의 생활화 및 안전의 생활화로 우리 지역을 찾는 수학여행 학생들을 비롯한 고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백 명이 한 번 온 경우보다는 한 명이 백 번 오게 한 명소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민근 기자



쾌적한 실내공간



국재솔로시티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